

담배에 대해서는 규칙을 정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담배를 기호식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담배가 음료수나 음식물 처럼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이유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 피우면 자신이 피웠던 담배를 그대로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나 기차등 공공장소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특히 공원이나 길을 걸으면서 보면 대부분 담배가 있는것을 보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은 자연환경과 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별로 좋지 않는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청소를 하려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결국 담배를 피우는것은 좋지만 피우지 않는 사람들을 때문에 장소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금연장소와 흡연장소로 결정한 규칙에 대해서 한다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아뭇튼 문제점은 많이 있지만 자신이 먼저 한다면 좀더 좋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